



즉시 배포용: 2017년 11월 11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CUOMO 주지사, 뉴욕의 퇴역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에 서명

주지사,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, PTSD) 추가, 응시료 면제 및 퇴역군인을 위한 서비스 개선, 전쟁 포로 및 전투 중 실종 군인(Prisoner of War/Missing in Action, POW/MIA) 기념물 제작 등 다섯 개의 법안에 서명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, 건강보험 및 건강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여 뉴욕의 퇴역군인들을 좀 더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뉴욕주 전 지역의 퇴역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다섯 가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. 법안 내용:

- 뉴욕의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(medical marijuana program)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, PTSD)를 추가,
- 의료 서비스, 상담, 기타 혜택 등을 받도록 뉴욕주가 고용한 전투 참전 퇴역군인들에게 유급 휴가 추가 제공,
- 명예롭게 전역한 퇴역군인들의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,
- 미국 군대를 위한 기금을 요청하는 모든 비영리 법인의 공개 목록을 유지하도록 주무부(Department of State) 및 육해군 사무국(Division of Military and Naval Affairs)에 요구,
- 뉴욕주 의사당 건물(State Capitol building) 내에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장소를 별도로 확보하여, 아직도 귀향하지 못한 퇴역군인들을 기리는 전쟁 포로 및 전투 중 실종 군인(POW/MIA) 의자 및 명판을 준비하도록 일반서비스국(Office of General Services)에 지시.

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우리 퇴역군인들은 이 나라를 세운 이상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. 따라서 그들이 귀향할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. 건강보험 치료 및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

하는 일에서부터 취업 장벽을 제거하는 일에 이르기까지, 이 다섯 가지 법안 모두는 퇴역군인들이 귀향할 경우 성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.”

첫 번째 법안(S.5629 (Savino)/ A.7006 (Gottfried))은 뉴욕 주민들이 뉴욕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(**medical marijuana program**)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의 열두 번째 조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**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, PTSD**)를 추가합니다.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**PTSD**)는 분노, 회상, 악몽, 야간 발한, 마비, 불면증, 회피 등을 포함한 정신적 외상성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한 후 그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에 관련된 심각한 건강 상태입니다. 뉴욕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**PTSD**) 환자 약 **19,000** 명이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. 여기에는 퇴역군인, 경찰관, 소방관들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, 강간, 폭력 범죄, 사고의 생존자들도 포함됩니다. 사실상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(**medical marijuana program**)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**PTSD**) 치료가 가능합니다.

두 번째 법안(S.2911 (Crocì)/A.3198 (Paulin))은 의료 서비스, 상담, 기타 혜택 등을 받도록 뉴욕주에서 고용한 전투 참전 퇴역군인들에게 휴가를 추가로 제공합니다. 전투 경험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전투 참전 퇴역군인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. 따라서 해외 및 가정 양쪽에서 그들이 직면한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추가 휴가가 필요합니다.

세 번째 법안(S.946 (Crocì)/A.1105 (Hunter))은 공무원 시험 응시료를 면제하여 일자리를 찾는 퇴역군인들을 지원합니다. 퇴역군인들이 민간인의 생활로 복귀하는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일입니다. 이 응시료의 면제를 통해 공공 부문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이 용감한 남녀 퇴역군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.

네 번째 법안(S.1853 (Crocì)/A.6038 (Dinowitz))은 군대를 대신하여 기금을 요청하는 모든 비영리 법인의 공개 목록을 유지하도록 뉴욕 주무부(**New York Department of State**) 및 육해군 사무국(**Division of Military and Naval Affairs**)에 요구하고 있습니다. 현행법은 뉴욕주 방위군(**New York National Guard**) 사령관에게 미군, 외국군 또는 모든 주의 보조 군대를 위한 기금 또는 기타 혜택을 요청하는 비영리 기관들을 상대로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 군대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기를 원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, 승인된-단체에 기부하는 일을 보장하게 됩니다.

최종 법안(S5540 (Lazna)/A7506 (DenDekker))은 뉴욕주 의사당(**State Capitol**) 내에 장소를 확보하여,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있는 수천 명의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전쟁 포로 및 전투 중 실종 군인(**POW/MIA**) 의자 및 명판을 준비하도록 뉴욕주 일반서비스국(**New York State Office of General Services**)에 지시합니다. 이 헌정은 포로로 잡혀 있거나 전쟁터에서 끝내 귀향하지 못한 용감한 육군, 해군, 공군,

해병대 병사들을 기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. 이 기념 의자와 명판은 스테이트 스트리트(State Street) 입구 근처의 국회 의사당(Capitol)의 1층 로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.

Diane J. Savi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뉴욕은 이 나라의 용감한 군인들 일부가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. 기타 트라우마 경험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TSD)로 고통받는 주민들 이외에도, 이 법안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. 우리 주민과 퇴역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,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뉴욕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심각한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법안에 서명하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.”

Andrew Lanz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무하는 용감한 남녀 군인들은 매일 헤아릴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위협으로 인해 일부는 귀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빈 의자 및 명판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전쟁 포로 및 전투 중 실종 군인(POW/MIA)들을 기념하기 위해 뉴욕주 의사당(State Capitol) 내의 전용 공간에 전시될 예정입니다. 저는 이 작은 감사의 표시가 뉴욕 주민들이 뉴욕주 의사당(Capitol) 로비에 와서 우리의 전쟁 포로 및 전투 중 실종된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보장하는 이 법안을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서명하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.”

하원 건강위원회(Assembly Health Committee)의 **Richard N. Gottfried**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TSD)를 앓고 있는 퇴역군인들을 포함하여 퇴역군인들의 정착을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. 이 병세의 영향으로 수많은 뉴욕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, 저는 효과가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안에 서명하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. 트라우마가 생신 사건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남녀 퇴역군인들이 이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. 이 일을 실현한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.”

퇴역군인 복무 위원회(Committee on Veterans Affairs)의 위원장인 **Michael DenDekker**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저는 용감한 전쟁 포로 및 오늘날까지 아직도 전투 중 실종 군인으로 남아있는 뉴욕 출신의 남녀 군인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을 추진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. 수천 명의 군인들이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에 있습니다. 뉴욕주 의사당(New York State Capitol)에 전쟁 포로 및 전투 중 실종 군인(POW/MIA)들을 기리는 의자를 설치함으로써, 우리는 모든 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치른 노력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.”

Amy Paul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우리 나라를 위해 복무한 이 용감한 남녀 퇴역군인들은 우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이 입법안에

서명함으로써, **Cuomo** 주지사님은 뉴욕이 우리 퇴역군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. 이 법은 퇴역군인들이 의료 혜택을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를 추가로 제공할 것입니다. 저는 퇴역군인의 날(Veterans Day)에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하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.”

Pamela Hunt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이 법은 공무를 통해 조국에 좀 더 봉사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, 명예롭게 전역한 퇴역군인들의 공무원 시험 응시료를 면제할 것입니다. 저는 이 법안을 후원한 일에 자부심을 가집니다. 이 법안에 서명하여 뉴욕이 퇴역군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**Cuomo**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.”

Jeffrey Dinowitz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저는 미군을 위한 기금 요청을 승인받은 모든 비영리 단체들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후원한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. 군대에 기부하고자 하는 뉴욕 주민들이 합법적인 단체에 기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돕고, 시스템을 속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기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법으로 제정하도록 서명하신 **Cuomo**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.”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